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2-29호 / 4월 3일

중국정부, SOC 사업에 대한 民資 유치 고심

1. 개요

- 서부지역 개발, 농촌현대화, 2008년 북경올림픽 등 대형 SOC 건설사업 계획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이들 사업의 상당부분을 민간 투자에 의존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중국정부는 금년도 재정지출을 작년에 비해 12% 증가한 2조 元 이상으로 책정하는 등 SOC 건설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부투자만으로는 계획된 사업을 완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중국정부는 관련 제도와 법규를 수정하여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을 SOC 투자에 적극 활용할 방침임.
- 국가계획위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미진한 원인으로 관련 정책 부재, 정부투자 위주의 기존 투자시스템 등을 지적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사업 관련 투융자 시스템 개선, 민간투자의 합법적인 권리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을 제시하였음.

2. SOC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모색의 배경과 세부 방안

□ 인프라 투자자금 부족

- 현재 중국은 도로용적률, 1인당 발전용량이 낮고, 철로 운송이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수리, 환경 및 도시지역 인프라 시설이 낙후되는 등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상태임. 특히 서부지역의 인프라 시설 수준은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더욱 열악함.
- 인프라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주로 정부재정에 의존하고 있지만, 2001~2005년까지 도시지역 인프라 건설에만도 1조 元의 투자자금이 필요한 실정으로 정부투자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자금은 2,000~3,000억 元에 불과해 나머지 투자재원은 은행대출, 외국인투자, 민간투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
- o 예를 들어 호남성은 2001~2005년 간 도시지역 인프라 건설에 430~460억 元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재정지원은 140억 元에 불과함.
- 국제기구의 차관이 지난 10여 년간 연 100억 달러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o 중국경제의 발전과 함께 국제기구가 중국보다는 여타 저개발국가에 대한 차관을 중시하고 있어 對중 차관이 현 수준 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은 별로 없음.
- 한편, 북경, 상해, 산둥성 등 주요 14개 지역의 민간자본(외자 포함)의 SOC 투자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2000년 기준).

□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부진 원인

- 개혁개방 이후 민간부문이 급속히 성장하였지만, 대부분 중소형 기업이고, 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은 41개에 불과함. 또한 이들 기업도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 인프라 투자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무엇보다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 민간투자의 걸림돌임.

- o 북경시의 경우, 민간투자중 70%가 주택건설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리, 전력, 가스 등 인프라 투자 비중은 7% 미만임.

□ 국가계획위 경제연구소는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첫째, 투융자 시스템을 개선함. 즉, ▲정부가 주도하지만 민간자본의 비중을 90% 이상으로 제고, ▲산업투자기금을 설립하여 분산된 소액 민간자금을 인프라 건설에 투입, ▲은행대출 우대(예: 특허 담보대출 허용), ▲회사채 및 주식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마련함.

- 둘째, BOT 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함.

- 셋째, 주식투자, 자금 공모 등 다양한 투자 형태를 허용함. 또한 경영권이나 사용권의 양도도 사업별로 탄력적인 방식을 사용하며, 부대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함.

- 넷째, 그동안 국유기업에만 허용되었던 항만, 철도 등 국가 주요시설 건설에도 민간기업의 진입을 허용해야 함.

3. 평가 및 시사점

□ 중국정부가 정부 자체의 투자자금 부족으로 민간의 SOC 투자를 유도하고는 있지만, 현존하는 제약요인들이 단시일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쉽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임.

- 특히 중국정부의 민간투자 방침의 주목적이 국유 건설업체와 민간 건설업체의 수주경쟁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측면이 아니라 정부 자금은 이전과 같이 대부분 국유업체가 사용하고, 민간업체는 자신들이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데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o 정부발주 사업의 경우 사업이 완료되면 건설후의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BOT의 경우 건설후의 경영성과가 기대수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해도 감수해야 함.
- 한편, 중국정부가 민간자본의 SOC 투자를 장려하면서도 각 사업장이나 건설 회사를 민영화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임. (***)